



לשמע
 쉘마의 것
 עבד ירבעם
 여로보암의 종

쉘마의 인장 (Seal of Shema)

예언자 호세아, 아모스, 요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셨나요? 북왕국 출신의 호세아,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, 그리고 정확히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요나, 예언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 세 선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연결 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이 지나쳤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. 이들 모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두가 북왕국과 관련하여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. 그 시대가 **여로보암 2세**의 때입니다.

알고보면 **여로보암 2세**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 익숙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흔히들 축구에서 “언성 플레이어” Unsung Player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그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선수 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, **여로보암 2세**가

바로 그 “언성 플레이어”입니다. **여로보암 2세**가 대단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,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입장에서 말이지요.

아합 왕조를 끝낸 **예후**의 증손자인 **여로보암 2세**는 8세기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북왕국 **이스라엘**을 통치하였습니다. 흔히들 통일 왕국 시대(사울, 다윗-솔로몬)와 분열 왕국 시대(솔로몬 이후)를 통틀어 **이스라엘**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을 꼽으라면, **다윗**과 **솔로몬**을 으뜸의 자리에 놓지요. 그 **다윗-솔로몬**의 치세에 확장하고 얻었던 영토를 그대로 다시 복원했던 유일무이한 왕이 **여로보암 2세**입니다. **여로보암 2세**의 통치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, “**부흥, 그리고 평화와 번영**”입니다. 북왕국의 왕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, 감히 “부흥, 그리고 평화와

번영”이라는 엄청난 단어들을 **여로보암 2세**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?

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**앗시리아의 왕, 아수르-니라리 5세** (Assur Nirari V, 755-745 BCE)의 시대였습니다. 이 시대 **앗시리아**의 왕은 궁중의 고위 관료들의 막강한 힘에 눌려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. 고대 **앗시리아**의 기록에는 매년 마다 왕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원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다른 제국에 비해서 **앗시리아**는 원정한 나라들과 도시들의 명단, 그리고 그들로부터 탈취한 전리품과 공물들이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합니다. 이것은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지요. 그런데, **아수르-니라리 5세** 때의 기록에는 무려 4년이나 아무런 원정 기록이 없습니다. 오히려 “그 땅에”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왕권이 강력하지 못했고,


신하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역사가의 평가가 숨어 있는 거지요. 결국은 그의 형제, 또는 아들이었을 **티글랏필에셀 3세** (Tiglath-Pileser III, 왕하 15:19 “불”)에 의해서 강제 폐위됩니다. 이 **앗시리아** 혼돈의 시대가 **여로보암 2세**의 시대였고, **여로보암 2세**는 **앗시리아**가 무질서와 불안 속에 있을 때, 그 영토를 **앗시리아**의 입구까지 확장하였습니다 (왕하 14:25). 41년에 걸친 **여로보암 2세**의 통치는 그야말로 “**이스라엘의 구원자**” (왕하 14:27)의 삶이었습니다.

그럼에도 **열왕기**를 기록한 역사가는 **여로보암 2세**를 참 야박하게 평가합니다. **다윗-솔로몬**의 치세를 회복하고, **이스라엘**을 부흥시켰으며, 북왕국 **이스라엘**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 이 뛰어난 왕을 “**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 자**”, “**노밧의 아들 여로보암(여로보암 1세)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**”라고 질책한 것이지요 (왕하 14:24).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**요나**는 뚜렷이 북왕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, **호세아**는 **여로보암 2세**가 다스리던 **이스라엘**을 남편을 버린 음란한 여인으로 (호 1-3), **아모스**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넘쳐나는 왕국으로 묘사했습니다 (암 2). 왜 그랬나고요?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.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생각했습니다. 오래 살았다 뿐인가요? 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왕이라는 증거로 여겨졌지요. **이스라엘** 사람들은 정말 그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것은 “**오래 삶**”과 “**오래 통치함**”에

대한 가장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.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영토가 넓어지고 왕궁과 성전의 창고에 값진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**이스라엘** 사람들이 믿었을 지라도,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예언자들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, 평화, 번영이 아니라,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는지(신앙), 그들의 사법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(사회)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.

고고학 발굴 100년의 역사를 통틀어, 안타깝게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의 하나가 **여로보암 2세** 시대의 고위 관료였던 “**쉐마**”(שֵׁמָא)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장입니다. 1904년에 독일계 **이스라엘** 사람인 **고틀리프 슈마허**(Gottlieb Schumacher)가 **텔-므깃도**(Tel Megiddo)를 발굴하면서 벽옥(Jasper)으로 만들어진 이 인장을 발굴하였습니다.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장은 지금까지 발굴된 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장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까요? 구약 학자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**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**가 1976년부터 이 인장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고, 이 인장이 발견된 **므깃도** 뿐 아니라, **이스라엘**의 이곳 저곳에서 이 인장이 새겨진 티셔츠와 기념품들이 판매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인장이 바로 **여로보암 2세** 시대에 살았던 **쉐마**의 인장입니다. 이 인장이 발굴될 당시는 **팔레스타인 땅**(현재의 **이스라엘 땅**)이 **오토만 제국**의 지배 아

래에 있었기 때문에 발굴된 이 유물은 **콘스탄티노플**(현재의 **이스탄불**)의 **오토만 제국**의 **술탄**에게로 갔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 문장의 가치를 **술탄**이 몰랐습니다. 그래서 **술탄**의 유물 창고 어디엔가 방치 되었을까요? 그 이후로 이 인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 이 인장의 행방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, 확실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**여로보암 2세** 시대를 증명하는 최고의 유물이자 **여로보암 2세**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한 유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.

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유물을 보자니, 부흥, 평화, 그리고 번영을 이루었던 **여로보암 2세**의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. 그리고 **호세아**와 **아모스**가 예언했던 “**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짐**”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**여로보암 2세**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부흥을 꿈꾸고, 평화를, 그리고 번영을 기대합니다. 그러나,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, 하나님의 눈에 흠족한 것이 아니라, 당장의 내 삶의 윤택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, 사라져 버린 **여로보암 2세**의 인장처럼 곧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? 

Bolen, Todd. “The Reign of Jeroboam II: A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.” Th.M. thesis., The Master’s Seminary, 2002.

Shanks, Hershel. “First Person: Have You Seen This Seal?” *Biblical Archaeology Review* 26[1] (2000): 4.